

## 기회의 땅 순천이 보여줄 콘텐츠산업의 미래, 올텐가!

오는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오천그린광장 일대에서 열려  
3,000대 드론쇼부터 OST 오케스트라, 케이타이거즈 케데헌 특별공연까지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 올텐가(All Content Garden)가 시민들 앞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올텐가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오천그린광장, 정원위케이션, 원도심 클러스터 일대에서 개최된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도심 속 6만 평 광장을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로 가득 채우고 동시에 기업과 창작자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콘텐츠 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 줄 계획이다.

▶ 3,000대 드론쇼부터 OST 오케스트라, 케이타이거즈 케데헌 특별공연까지!

10월 17일, 올텐가의 첫 장은 '애니메이션 OST 오케스트라'로 장식한다. 춤추는 지휘자 백운학의 지휘 아래 47인의 서울페스타 필 하모니의 선율과 카이, 아이비의 라이브 공연이 더해져 폭죽이 있는 광장형 오케스트라를 선보인다. 국내외 명작으로 꼽히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인어공주, 알라딘 등 테마곡과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OST 등 화려한 선율이 6만 평 광장을 가득 메울 예정이다.

둘째 날인 10월 18일에는 올텐가의 시그니처 연출로 꼽히는 '캐릭터 드론쇼'가 준비됐다. 무려 3,000대의 드론을 동원해 더욱 기대감을 높인다. CJ ENM

과 협업해 트렌디하게 재해석한 시 마스코트 루미와 똥이를 필두로 핑크퐁과 아기사자, 벨리곰, 잔망루피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테디 IP인 스머프도 오천그린광장 상공에 그려지게 된다.

드론쇼 이전에는 '케이타이거즈'의 케데헌 특별기회 공연을 만끽할 수 있다. 케이타이거즈는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액션 시퀀스를 연출한 장본인인 만큼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액션 퍼포먼스와 함께 댄스 공연도 함께 결집될 예정이다.

올텐가 마지막 날인 10월 19일에는 핑크퐁과 루미퐁의 심어홍소를 비롯한 핑크퐁 가든워킹으로 캐릭터와 가까이 호흡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 지역 브랜드를 강화할 콘텐츠와 마니아를 불러 모을 서브컬처와의 결합 기대

작년과 비교해 이번 올텐가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지역 IP를 주인공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내세웠다는 점에 있다. 시 마스코트인 루미와 똥이 특화 콘텐츠 40여 종을 판매하는 '루미똥이 팝업스토어'가 전격 오픈되며 루미·똥이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락 만들기 체험과 캐릭터 모양을 본뜬 솜사탕도 맛볼 수 있다. 또한 7m에 달하는 루미·똥이 대형 포토존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로 준비됐다.

순천시는 지역 IP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을 넘어 마니아들을 불

러 모을 서브컬처와의 결합도 시도한다. 전국구 서브컬처 종합 이벤트인 '일러스트 페스티벌'을 올텐가의 뿌리 행사로 개최, 개성 있는 굿즈를 판매하는 크리에이터 마켓부터 이오몽 등 버튜버 팬미팅, 코스플레이 댄스, 김혜성 성우의 팬미팅까지 알차게 채워졌다.

이외에도 ▲김종 작가 토크콘서트 ▲일본 애니메이션 '록백' 감독, 요시아마 키요타카 토크콘서트 등 콘텐츠를 주제로 폭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 치유와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산업전, 올텐가

올텐가는 차별화된 광장문화를 향유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B2C 영역을 넘어 콘텐츠산업을 키워가는 비즈니스의 장(산업전)이기도 하다. 원도심 공실이 콘텐츠 기업 사무실로 변모해 가며 웹툰·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점차 윤곽을 드러낸 만큼 기업의 산업 역량도 지역에서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산업전에는 국내외 기업·바이어 72개사가 순천에 방문한다. 시 이전 기업 23개사를 포함해 국내외 바이어 43개를 비롯한 6개사의 투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원위케이션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상담회, IP 피칭, 네트워킹 파티를 거쳐 콘텐츠산업이 지역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여기에 순천시 콘텐츠 정책 방향과 제도를 소개하는 투



자유치설명회, 웹툰·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거점인 원도심과 습지센터를 투어하는 일정 또한 진행된다.

참가 기업들은 입을 모아 "여타 도시와는 다르게 정원을 주무대로 삼은 산업전인 만큼 휴양과 치유가 가능한 색다른 비즈니스 경험이 기대된다"며, "지역에서 실질적인 콘텐츠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번 산업전이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올텐가는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로 일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라며, "콘텐츠를 향한 비전 있는 기업과 학생, 창작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콘텐츠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순천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 “롯데월드 퍼레이드, 충장축제로 즐기자”

18일 금남로 1~3가, 마칭여성밴드·매직포레스트 등 눈길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절정에 이르는 18일 행진 날 I에 금남로 일원에서 국내 최대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어드벤처와의 협업으로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초대형 퍼레이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충장축제의 주제인 '추억의 동화'에 맞춰 마법과 환상의 동화 속 세계를 도심 한복판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롯데월드 퍼레이드행진은 축제 4일째인 18일 오후 7시부터 금남로1~3가에서 진행되며, 관악그룹인 롯데월드 마칭여성밴드가 선두에 서서 롯데월드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매직포레스트 플라워 퀸, 매직포레스트 보석세공사, 월드오브라이트 토퍼러 캐릭터 등의 행진과 롯데월드 캐릭터와 동화 속 주인공으로 분한 전문 연기자들이 등장해 관람객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50분의 퍼레이드가 끝난 후에는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롯데월드 나이트 불꽃



놀이가 펼쳐지며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불꽃놀이가 이후 밤 9시부터는 시민 참여형 야간 프로그램인 충장 로드 나이트가 시작된다. 광주 출신인 전(前) 달사넷 멤버인 DJ수빈 등 출연자들과 반짝이 가면, 야광 소품을 착용한 관람객들이 충장로 1가~웨딩의 거리~천변우로~중앙로~충장파출소~주무대로 약 1.5km를 행진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축제의 퍼레이드는 '추억의 동화'라는 주제를 가장 크고 화려하게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국내 최고 수준의 공연과 야간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 광양시, 기획초대전 'FOCUS展' 개최

서양화·한국화·서예·조소 등 33점 전시... 자연과 생태 주제로

광양시가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광양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광양미술협회 고문전 'FOCUS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기획초대전으로, (사)한국미술협회 광양지부장을 역임한 6명과 고문으로 활동 중인 5명 등 지역 작가 11명이 참여한다. 전시작품은 서양화, 한국화, 서예, 조소 등 총 33점으로 구성됐다.

출품작은 백운산과 섬진강 등 광양의 자연을 소재로 하여 지역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며,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자연이 지닌 상징성과 정서를 감각적으로 조명한다.

김명덕 문화예술과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광양시 문화예술과(797-2528)로 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화순군(구북구 군수)은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에 있는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에서 10월 3일(금)부터 2026년 1월 11일(일)까지 기획전 '근원의 시간'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예술을 통해 급격한 사회 변화와 환경 위기 속에 인간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조건을 성찰하고, 관람객에게 삶의 본질을 되짚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산업화와 기술 발전은 인류에게 편리와 풍요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기후 위기와 생태계 붕괴, 내적 공허와 자기 상실이라는

##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기획전 '근원의 시간'展 개최

'환경과 인간존재의 조건을 탐구하는 두 작가의 만남'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예술적 언어로 담아내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근원'의 의미를 관람객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전시에는 조각가인 김숙민 작가와 박형오 작가가 참여한다. 김숙민 작가는 폐자재와 금속, 레진 등을 활용한 조형 작업으로 인간 문명이 남긴 잔해와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드러내며 환경이라는 외적

근원이 무너질 때 인간의 존재 또한 지속될 수 없음을 경고한다.

반면 박형오 작가는 기억과 무의식, 모성 원형을 환기하는 조각 작업을 통해 상처와 결핍을 넘어 자기의 중심을 회복하고 충만에 이르는 내적 근원을 탐구한다. 두 작가의 각기 다른 작업은 서로 교차하며, 관람객을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세운다.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자리를 넘어, 외부와 내부라는 두 차원의 근원이 어떻게 인간존재의 조건을 형성하는지를 사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환경과 자기 성찰을 하나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며, 삶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성찰하게 될 것이다.

감상영 문화예술과장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근원의 의미를 깊이 체감하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화순/김종환 기자

국민 내로부턴 농어촌

보다나온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쪽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